

南 '서해특구' 北 '조선협력'에 주력

■ 남북총리회담 합의문 어떤 내용 담기나

'2007 남북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 참가 중인 양 측 표단이 15일 회담 이틀째를 맞아 본격적인 이번 조율에 들어간 가운데 합의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과 개성공단 활성화, 이산가족 상봉 확대 등이 남측이 우선적 추진을 원하는 사업이라면 철도·도로 개보수와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을 북측이 중점을 두고 있는 의제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공동으로 수역 설정, 해주항 개발, 해수 경제특구 건설,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5개 사업을 통해 '갈등의 바다'인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바꾸려는 이 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틀이 이번 회담에서 합의될 전망이다.

김남식 통일부 대변인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관련해 별도의 추진기구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상당히 이뤘다"고 밝혔다.

남측은 이 별도 추진기구의 명칭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공동위원회'

로 하고 위원장을 장관급이 맡고자 제안했으며 북측도 이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문에는 첫 회의 일정도 적시될 것으로 보이는데 12월 초가 유력하다.

또한 평화와 경협이 둘인 사업의 특성상 내각 인사 뿐만 아니라 군 인사도 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데 대해 북측도 이해하고 있다고 당국자는 설명했다. 공동위원회 산하에 5개 사업에 대한 3~5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당초 남측이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와 관련, 최대 목표치로 상정했던 5개 세부사업의 구체화는 이번에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다소 아쉽지만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이행 틀을 만든 것만도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철도·도로 개보수=정상선언에서 합의된 '남북한 공동이용을 위한 개성·평양 고속도로 및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는 북측이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사안이다.

북측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는



남북총리회담 이틀째를 맞은 15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영일 북측 내각 참사가 국립중앙박물관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산-봉동간 화물열차 개통 날짜 조율 중

北, 철도 등 개보수 제기... 오늘 종결회담

15일 이 사업을 "비교적 짧은 기간에 선언 리행(이행)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을 수 있는 사업분야"라며 '선결 과제'로 적시하기도 했다.

남측은 철도·도로 개보수의 전제 조건으로 '남북한 공동이용'에 대해 먼저 구체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

며 여기에는 이미 연결된 경의선·동

해선 열차의 완전개통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정상선언에 적시된 경의선·문산-봉동 화물열차 운행이 '공동이용'의 출발점이 될 수 있으며 남북은 연내 운행에 사실상 합의하고 구체적인 개통 날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부시 대통령, 할리우드에서 '가장 썰렁한 인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할리우드에서 가장 '썰렁한' 인물로 꼽혔다.

미국의 온라인 영화잡지 '필름 스레트'(FilmSlate)는 14일 올 한해 미국 연예계 인사 가운데 대중의 관심을 끌는데 실패한 '썰렁한 인물 50인'(Frigid 50)을 선정·발표하면서 부시 대통령을 맨 앞자리에 올렸다.



세계 최고 부자 워런 버핏 "富 대물림 안돼"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사람인 워런 버핏은 미국의 상속세 존폐 문제와 관련, 자신과 같은 소수의 부자를 위해 폐지하기보다는 이 세금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버핏은 14일 미 상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나같은 (부유한) 사람들의 유산에서 좀 더 취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영화배우도 아니고 단 한번도 TV 드라마에 출연한 적도 없는데도 불구, 부시 대통령이 '트랜스포머' (Transformers), '아메리칸 드립즈' (American Dreamz) 등의 영화에서 패러디의 대상이 되고 '식코'(Sicko), '끌이 안보인다'(No End in Sight)와 같은 다큐멘터리에서 집중 조명됐다.

는 이유로 가치없이 '불명예'를 안긴 것.

이 잡지의 편집자는 "강자 'W'(부시 대통령을 지칭)는 영화계의 저명 인사"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에 이어 '썰렁한 인물' 2위는 셀시스타 안젤리나 졸리가 차

지했다. /로스앤젤레스AP=연합뉴스

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큰 손의 자선사업가로도 유명한 그는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상속세 폐지 또는 세율 인하 노력에 반대해 왔는데 민주당측에서는 상속세 폐지가 부자들에게 황재를 안겨 주는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

면서 이같이 말했다.

버핏은 자신이 기회균등의 원칙을 신뢰한다고 전제하면서 상속세가 거대한 부(富)를 공공을 통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력주의와 기회의 가치 기준을 보존하는 것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회의 자원이 부의 귀족

왕조로 불리게 되는 식으로 대물림돼

'뉴욕 필' 내년 공연 서울-평양 연계 추진

내년 2월 북한에서 공연하는 미국의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북한의 혁신식 공연장인 동평양 대극장에서 공연한 뒤, 곧바로 서울의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5일 보도했다.

뉴욕필의 평양공연을 제안, 추진해온 대평국제투자그룹의 배경한 부총재는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측은 (공연장으로) 원래 모란봉 극장을 고려했으나 뉴욕필이 가장 규모가 크고 시설이 좋은 동평양 극장을 직접 선택했으며, 북한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배 부총재는 지난달 평양을 방문한 뉴욕필 관계자들이 공연 단원의 숙소와 식당, 견학 장소 도 직접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미국 비자면제, 빨라야 2009년初"

미 총영사 "비자거부율 완화 대신 새 조항 까다로워"

한국인에 대한 미국 비자면제는 2009년 초나 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비자면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던 비자거부율이 완화된 대신 새로운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이 시행되면서 테러정보 공유 등 한·미 양국간 논의해야 할 쟁점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주한 미국대사관 줄리아 R. 스탠리 총영사(여·56)는 14일 "VWP가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을 충족시키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이르면 2008년 말이나 2009년 초 한국인에 대한 미국 비자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스탠리 총영사는 "비자면제 시기에는 양국의 협의 속도에 달려 있다"며 "범죄 정보 공유와 같은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VWP의 자격을 갖춘 첫 번째 국가로, 보안 강

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이를 위해 내년 1월 이후 VWP 기술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수시로 긴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스탠리 총영사는 테러활동 정보 공유가 양국간 가장 민감한 쟁점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하고 "양국 정부에 모두 민감한 사항인 만큼 사생활 보호와 국제여행 보장과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美, 北 테러지원국 해제 해법 고심

연내 해제 위해선 16일까지 의회 통보해야...백악관 침묵

북한이 연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한 공식 시한이 하루(16일)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법규정상 45일 전에 대통령이 의회에 통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악관과 국무부는 15일 이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켰다.

◇美, 테러지원국 해법 뭘까=현재 미 의회와 정부에서 흘러나오는 정보를 종합하면,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핵불능화와 협프로그램 신고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됐을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연내에라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되돌릴 수 없는 정도의 불능화를 준수하고, 우리나라 축구프로그램(UEP) 등 각종 협프로그램에 관한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면 부시 대통령이 연내 적절한 시점, 이르면 12월초쯤 관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위상된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백악관과 국무부는 15일 이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켰다.

다면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완전 삭제되려면 의회 통보 후 45일이 지난 다음 관보에 게재해야 되는 만큼 연내 해제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미국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면 북한이 테러지원국에 서 해제됐을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연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

인 것으로 알려져 북한의 반발은 크게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 북미금융회의 테러지원국 해제 전주곡(?)=이런 점에서 오는 19, 20일 뉴욕에서 열리는 북미간 금융실무회의가 관심사다.

이번 회의는 북한이 그간 의혹을 받아온 돈세탁과 '슈퍼노트' 위조 의혹에 대해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해 이뤄진 것이어서 테러지원국 해제 요건 충족을 위한 북한측의 고심이 읽혀진다.

◇日의 반발=美 해제조치 지연시킬 듯=미국이 일본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폐기 속도에 맞춰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적성국교역법 대상에서 배제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워싱턴=연합뉴스



프랑스 '개혁 반대' 파업...TGV 스톱

프랑스 공공부문 노동단체가 정부의 특별연금 개혁에 항의해 지난 13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 14일 프랑스 남서부 톨루즈시의 철도노동자들이 고속열차인 TGV를 가로 막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금융회의 기법과 "가장 좋은 것은 사랑입니다" 힐링드림
제작 "소비자가 좋은 것은 사랑입니다" 힐링드림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바로 '사랑'입니다!

어릴 때, 배가 아플 때, 엄마 손은 복통약이었고, 머리 아플 때는 두통약이고, 혈액처럼 염증을 치료했습니다. 아플 때마다 사랑으로 낚게 하는 엄마의 손 "엄마 고맙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깊은 약손처럼, 사랑은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약이 됩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코엔지임 010 함유

항산화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연질캡슐

비타민 A, C, E의 보급

- 흐름이나 일상 생활에 필요한 영양제

- 노인의 간호급의 원재료, 아동용

- 흐름, 피부염 등이 위한 적소침착

(타이, 주크제트, 글리, 아파풀트)

- 비타민 E(비타민 E)

- 항초류(항암제 및 항생제)나 대량

증상(증상, 어려움, 목병)

수족(수족, 수족증)

이연의 보급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www.kakje.com

고객을 위한 힐링드림 080-022-2200